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의 SGI 선병수 과장, 민경희 연구위원

제118호 2020년 3월 16일

편집자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전망 그리고 대응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대응 시급한 한국경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회복 국면을 보이던 글로벌 경제에 악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유럽·북미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코로나19는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 감염병의 경우보다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날 리스크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유례없이 강한 데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16%, 무역 10%, 관광객 18%)이 커진 데도 원인이 있다.

주요 기관, 코로나발 성장률 하락 예상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및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중국은 5.7%에서 4.9%로, 한국은 2.3%에서 2.0%로 하향 발표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p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3/8).

과거 감염병과 우리 경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3번의 세계적 감염병 시기에 도 우리경제는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SARS: '02.11, 신종플루: '09.3, MERS: '15.4). 특히 감염병과 국내외 경제 충격이 중첩되었던 2003년(카드사태)과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에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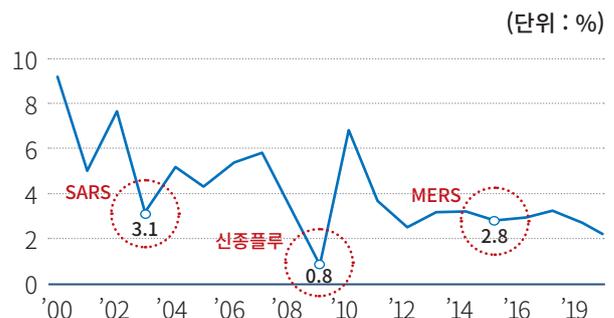
[주요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글로벌	중국	한국
OECD(3/2)	2.9 ⇨ 2.4	5.7 ⇨ 4.9	2.3 ⇨ 2.0
무디스(3/9)	2.9 ⇨ 2.1	5.8 ⇨ 4.8	2.1 ⇨ 1.4
S&P(3/5)	3.3 ⇨ 3.2	5.7 ⇨ 4.8	2.1 ⇨ 1.1
한국은행(2/27)	2.9 ⇨ 3.0	6.1 ⇨ 5.5	2.3 ⇨ 2.1

※ 자료 : OECD, 언론 보도·보고서 등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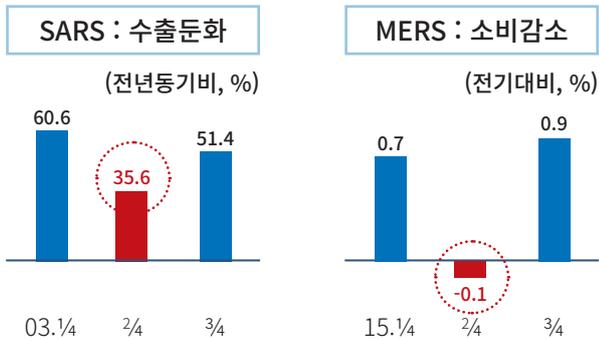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과거 감염병 사례처럼 금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감염자가 많았던 SARS 당시는 수출이 둔화되었고, 국내 감염자가 많았던 신종플루와 MERS 때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었다.

코로나19는 내수·수출·관광 등 복합적 파급 경로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감염병 사례]



코로나19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① 수출 둔화

금년 들어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힘입어 글로벌 교역과 수요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 회복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보다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상승(*17년 전방참여 23% 후방참여 13%)함에 따라 세계 교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GDP 중 수출비중(*19년 40%)이 높고 對中 수출의존도(25%)가 높아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이다.

실제로 금년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영업일수가 3일 늘어났으나 4.5% 증가에 그쳤고 일평균 수출은 11.7%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9년		2020년	
		12월	1월	1월	2월
지역별	전체수출	△ 5.2	△ 6.3	△ 4.5	
	미국	△ 0.4	△ 7.2	9.9	
	EU	△ 20.3	△ 16.2	△ 2.0	
	일본	△ 5.6	△ 6.7	△ 3.0	
	중국	3.4	△ 10.7	△ 6.6	
	베트남	△ 5.3	1.5	10.5	

※ 자료 : 산업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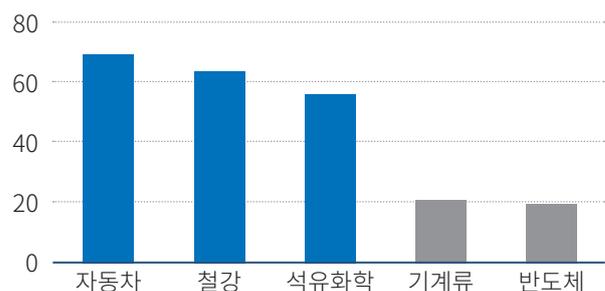
② 중간재 조달 애로

중국 내 조업 감소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중간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전체 수입 중 對中 수입 비중이 21%로 높아진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對中 수입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에서 對中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국의 생산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부품·중간재 수입 애로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업종의 중간재 對중국 수입 비중]

(단위 : %)



※ 자료 : 한국은행

대한상의 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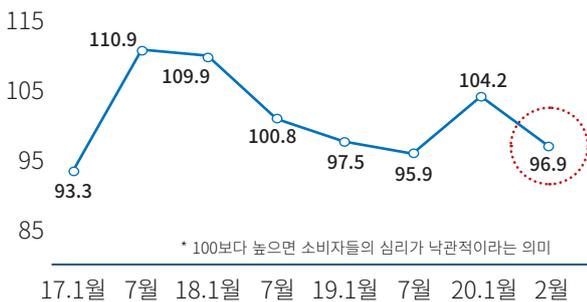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③ 소비·투자 심리 위축

경제심리는 금년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금년 1월 19개월 만에 최고치(104.2)를 기록했으나, 2월 중 다시 큰 폭으로 하락(96.9)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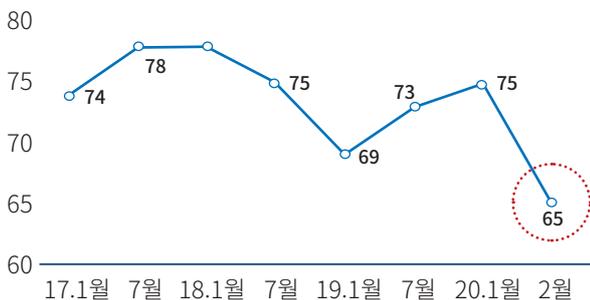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월에 '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75→65)했다. 특히 생활서비스업에서 낙폭이 컸는데 숙박·도소매업(67→25)의 경우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④ 관광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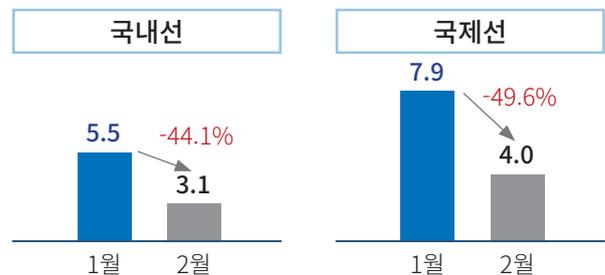
내·외국인의 관광수요 급감으로 인해 국내 여행·숙박·항공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2월 상반월에 32%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동기간 69% 급감했다.

해외여행 관련 업종의 경우에도 예약 취소와 신규 예약 기피로 항공여객이 감소(국내선 44%, 국제선 50%)하며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국제선 여객 현황]

(단위 : 백만 명)



※ 자료 : 한국항공공사 / 주) 2월은 2.1~3.10 기준

'수요·공급·고용' 전방위 대책 필요

① 수요 위축에 적극 대응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현재 산업계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발생 중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최근 편성된 11.7조 원 추가경정 예산은 국회 논의를 통해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액이 집행되더라도 GDP 효과는 재정승수 등을 감안할 때 0.22%p 수준¹⁾에 그쳐 피해 지원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 1%대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위기 수준에 상당하는 규모²⁾의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11.7조-3.2조(세입경정))×0.5(재정 승수)/GDP(2019)=0.22%p

2) 1998년 25.0조, 2009년 28.4조 등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② 공급기반 약화 방지

금융지원 통로(파이프라인)가 원활히 작동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제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경제 상황임에도 일선창구에서는 절차적 복잡성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정부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데는 정부와 한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 지급 보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대출 플랫폼 개선을 통해 mismatch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

아울러 관광·항공·외식업 등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또한 시급하다.

③ 고용안전망 강화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이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불안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SARS, MERS 등 과거 감염병 시기에도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된 바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주도로 고용안전망을 적극 강화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용비용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실업으로 인한 생계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액 상향과 지급기간 연장은 물론 실업급여 사각지대(자영업자 등) 해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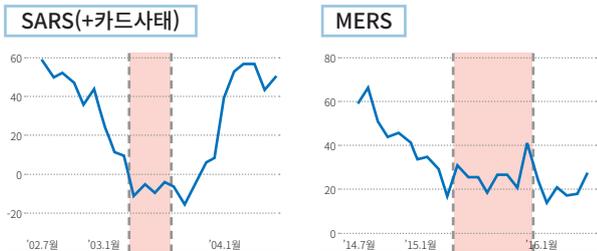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 시행을 추진하고, 동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확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고용안전망 관련 주요 정책]

항목	내용	'20년 예산	
실업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20만 명 2,771억 원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60%), 기간 연장(120~270일)	9.5조
일자리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부담 완화 (월 9~11만 원)	230만 명 2.2조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 근로자 세금 환급 (연간 150~300만 원)	388만 가구 4.3조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 사업주에게 인건비 50% 지원	2220개 사업장 0.1조

[취업자 증감]

(단위 : 전년동기비, 만 명)



※ 자료 : 통계청 / 주)붉은색 음영은 감염병 발생 기간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3월 16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2.2	-	2.0	2.3
세계	3.6	2.9	3.3	3.4	2.4	3.3
미국	2.9	2.3	2.0	1.7	1.9	2.1
중국	6.6	6.1	6.0	5.8	4.9	6.4
일본	0.8	1.0	0.7	0.5	0.2	0.7
EU	1.9	1.2	1.3	1.4	0.8	1.2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19.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84	1,167	1,176	1,164	1,194
원/엔(100엔)	1,009	996	996	1,094	1,073	1,077	1,065	1,085
원/위안	167.5	166.4	166.4	166.9	166.3	167.6	168.0	170
원/유로	1,276	1,299	1,299	1,309	1,291	1,306	1,294	1,302
유가(Dubai)	53.2	69.7	63.5	59.4	62.0	64.9	64.3	54.2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19.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산업생산	2.6	1.6	0.6	0.1	1.6	3.9	-0.5	-
소매판매	1.9	4.3	2.4	1.9	3.7	4.5	1.8	-
설비투자	14.4	-3.6	-6.2	-1.6	1.1	11.2	-3.8	-
수출	15.8	5.4	-10.4	-15.0	-14.5	-5.3	-6.3	4.5
수입	17.8	11.9	-6.0	-14.6	-13.0	-0.8	-5.4	1.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